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꿈꾼다

익산 방문의 해 선포... 교통·먹거리·축제 조화 이루는 '익산형 투어' 실현



익산시가 풍성한 관광자원과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강하고 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에 나섰다. 올 한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가능성을 높여왔다.

시는 핵심 자원인 '교통'과 '먹거리', '축제'를 활용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체육형 관광'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콘텐츠를 늘리고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쉽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관광객 500만을 넘어 1천만 시대를 걸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

이다.

익산시가 2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시는 선포식에 맞춰 익산형 투어를 본격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세대별 여행 패턴을 고려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10대를 위한 '수확(收) 子', 20대 감성 '인스타 연인여행', 아이들과 함께하는 30대들의 여행 '자녀교육 古都체험', 40대 '쇼핑과 하루여행', 미식관광과 생태여행이 주를 이루는 50대들의 '힐링여행' 등이다.

각 관광상품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박물관 등 역사자원을 포함해 아가페 정원, 교도소세트장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지역의 핫플레이스와 연계해 운

영된다.

시는 또 체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야간 콘텐츠 확충과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시는 내년 초부터 단체 소규모 기차 여행객 등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40만원과 1인당 최대 1만5,000원의 숙박비 수확여행과 현장학습 단체 학생은 1인 최대 5,000원까지 숙박이나 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미륵사지 메타버스를 올 연말까지 조성하고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놀이 체험 시설 확충, 야간경제관광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이미 시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8만명, 서동축제 10만명 방문객을 유치하며 야간경관 콘텐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익산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관광 자원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 성공적으로 인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금마면 고도지구 거리 건물들이 전통 건축양식으로 변신해 화제다.

금마·고도길 전통 옷 입었다

고도지구 특색 살린 디자인... 경관개선·새 관광 콘텐츠 창출

익산시 금마면 고도지구 거리 건물들이 전통 건축양식으로 변신해 화제다.

익산시는 고도지구 주요 가로변인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 금마농협 사거리 구간 내 노후된 상가건물들 전면부 외관에 고도 전통적 이미지를 불어넣어 새로운 경관을 탄생시켰다.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익산 거주자 소유 및 건물 노후년수 등을 검토해 사업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했으며 상가 전면부 외관을 외면마감, 기와지붕설치, 처량설치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도지구 이주단지 옆 도로변과 익산고등학교의 전통담장 설치와 금마길 쉼터 내 경관조형 등이 조성 중에 있다.

시는 이천년고도 익산의 이미지에 걸맞은 거리 디자인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고도지구에 방문객들이 많이 올 텐데 주요 도로변이 이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정돈되고 깔끔해서 활력 넘치는 고도 가로변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및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고도지구 내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공공기관(금마파출소, 금마우체국) 외관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 생활유적 한샘정비, 금마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을 완료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동학대 예방, 시민 인식개선 중요

군산시, 아동학대 중복지대 많고 친부모가 가장 많아... 방안 필요

군산지역에서도 여전히 연평균 3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예방과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교육관계자 등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어 부모교육, 인식개선 등 예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이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아동인구수는 4만1,733명으로 최근 3년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56건이며 이 중 90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388(신고 건수450)건, 2021년 388(506)건, 올해(지난8월까지) 130(200)건으로 해마다 약 300건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지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 등이었으며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친부모가 가장 많고 교육관계자, 계부모, 친인척 등 순이다.

아동학대 경험 학령도 미취학과 초등학교 때 경험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양육기술 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출장 교육을 연중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22일과 오는 29일 캠페인을 실시하고 24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학대로 인지되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업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상' 수상

익산시가 농업 가공상품 마케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농업가공창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의 가공·창업 마케팅 지원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를 평가하는 대회다.

센터는 농식품 가공기술보급, 창업 경영체 육성 실적, 성과확산 및 지역 사회 기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관



분야 전국 3위를 달성했다.

특히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제품 개발 - HACCP 인증 - 판로 개척까지 소규모 농부 CEO를 배출해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금 상향

군산시는 22일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면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오는 2023년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가진 반납하면 지원하던 10만원 상당의 군산시문화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575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타시군과 비교해 10만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호응유도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내년부터 도내 타시군과 의 형평성 제고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군산시는 22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되었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군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전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입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